

#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대구 지역 중심으로-

신 성 자\*\*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II. 문헌 연구	
III. 연구설계	
IV. 결과분석	
V. 토론 및 결론	
VI. 제언	

## I. 서론

###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sexual violence)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이고<sup>1)</sup>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 문제를 사회 문제화시킨

\* 본 논문은 1995년 경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북 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조교수

1) 최영애, 재단법인 아산 복지사업 재단, "성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제8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토론 자료집」, 1997, p.2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건수(1021건)중 전체 성폭력의 95.2%가 남성 에 의해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력이었다. 남성 피해의 경우는 4.8%(49건)이었는데 남성 피해

것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론자들의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노력(collective action)의 결실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이 만연되어 왔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sup>2)</sup> 다른 어떤 폭력 피해자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폭력은 감추어진 문제로 덮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강간(rape) 피해자들이 치안 기관에 신고하는 피해 보고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sup>3)</sup>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보호받기보다는 쉽게 비난받게 되고, 강압적(또는 강제적) 성행동을 한 남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이중 성규범이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율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성폭력은 실제 낯선 치한이 아닌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대 남성을 알고 있는 지인 강간(acquaintance rape)중에서도 상당 경우는 남자 친구를 포함한 데이트 상대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sup>4)</sup> 데이트

자의 경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가해자가 성인 남성이었다.

- 2) 1)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1993.4., pp.76~77. 상담 사례를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는 순결 상실감, 우울증, 남성 혐오, 죄의식 분노, 불안, 두려움, 자존감 상실 등을 호소하였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가출, 반복적 강간 피해, 성관계 기피, 성관계 문란, 자해 행위, 자살 시도, 약물 복용 등의 부적응 행동도 보였다.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임신(26.1%), 질파열(26.1%), 성기 이상(26.1%), 성병(17.4%) 등이 많았다.
- 2) 한국 여성 개발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2년 연구 보고서 200-7, 1992, pp.88~96.
- 3) 최영애, 앞의 글, 1997, p.1. 90년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 4) ①중앙일보 1996, 12. 4. 1996년 1월~9월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강간 피해 여성(666명)을 상담하였는데 피해 여성이 상대 남성을 모르는 경우는 약 23%에 불과하였다. 데이트 강간 피해자도 약 11%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이 데이트 강간을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 강간의 경우보다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각주5 참조) 실제 데이트 강간 발생율이 매우 높은 것이라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강간 상담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 모르는 사람(23%), 아버지, 오빠 및 6촌이내 친 인척(21%), 직장 상사 및 동료(13%), 동네 사람(10%), 기타 아는 사람(9%), 동급생, 선후배(5%), 데이트 상대(11%), 교사 강사(3%), 미상(5%)

②Warshow, Robin. I never call it rape. Happer & Row Publisher, New York, 1988, pp.12-14. 이 책에서 Warshow는 강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1980년대 여러 연구 조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보고된 강간 사건들(총 90434건)중에 약 70~80%가 지인 강간이었다. 1982년 발표된 Auburn대학의 한 박사 과정 학생의 조사에 의하면 약 25%의 학부 학생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중 93%는 가해자 남성을 잘 안다고 하였다. South Dakota(1984)대학 여학생들 중 약 20%가 데이트 강간을 보고하였다. Rhoda Island대학 여학생들 중 약 16%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남학생들 중 약 11%도 강제로 상대 여성에게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는 남여가 서로 이성(異性)으로서 관심을 갖거나 이성애적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남여가 만나는 교제 활동이다. 데이트는 남여의 심리·성적 발달을 위해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데이트를 통해 이성간의 친밀감(intimacy)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창출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트의 긍정적 효과는 데이트 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보살피는 기본자세를 갖출 때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력, 언어적 위협, 물리적 또는 신체적 힘을 이용하여 남성이 상대 여성을 조정, 강제 또는 강압하여 성행위를 하는 데이트 강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를 모르는 일반 강간(stranger rape)과는 달리 데이트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 남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강간의 경우보다도 데이트 강간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드물다고 한다.<sup>5)</sup> 데이트 강간 희생 여성들의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데이트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일반 강간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sup>6)</sup> 오히려 데이트 강간 피해 여성은 일반 강간 피해 여성보다도 대인 신뢰감에 더 큰 손상을 입는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상처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강간으로 입는 여성의 고통이 심각하고, 가해자를 알고 있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데이트 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에서 보다 피해 여성에게 책임과 비난을 더 돌리고, 데이트 상황에서의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의 행동은 더욱 더 합리화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데이트 상황에서의 남성의 공격적인 성

③Russell, Diana E., Sexual Exploitation, Sage Library of Research Center, Sage, 1988, pp.35-38. 무작위 추출한 9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44%의 여성들이 강간을 또는 강간 시도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 88%의 여성들이 상대 남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5) Crook, Linda Diane, Traditional Male Role Socialization and Sexual Victim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A, 1985, p.46, citing Amir, M., Patterns in Forcible Rap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Amir는 연구 조사에서 강간 피해 여성들이 상대 남성을 아는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간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6) 한국 성폭력 상담소, 데이트 강간 자료집, 1992, p.13-22, p.14-23. 데이트 상대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경우에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일반 강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실은 데이트 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에 비해 피해 여성이 느끼는 고통 중 분노, 배신감이 일반 강간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64건의 상담 사건 중 자살을 실제 시도한 여성도 세건이나 있었다.

행동을 남성다움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결과임을 1970년, 1980년대 시행된 서구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최근 특히 젊은 층에서 과거에 비해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다소 융통성 있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할 때,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데이트 강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sup>7)</sup>

데이트를 하면서 이성간의 성적 친밀감을 체험하는 것은 성년기의 성숙한 삶을 위한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development task)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부담으로 억눌려 왔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아직 견고한 자기 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않은 채,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이성 교제를 위한 데이트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활발히 데이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데이트 강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선 데이트 강간 위험수위 집단(risk group)<sup>8)</sup>인 남자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데이트 상황에서의 강압적인 성행동 성향을 파악하고 데이트 강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연구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동의 근본 원인은 그릇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서구의

7) Ilsa L. Lottes, "Sexual Socialization and Attitudes toward Rape"(chapt.12) in Ann Wolbert Burges(ed), Rape and Assault II, pp.200-213,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1988, citing Wheeler, J.R. and C.N Utigard, Gender Stereotyping, Rape Attitudes, and Acceptance of Intercourse Violence, Paper presented at combined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Scientific Study of Sexuality and Americal Association of Sex Educator, Counselor, and Therapists, June, Boston, Mass., 1984. Wheeler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대인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이 강압적인 성행동을 정당화하는 믿음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Lotte, Isa L.은 1970년대 후반부터 높은 연구 관심과 함께 발표된 강간 현상 관련 여러 연구들(Clark and Lowis : 1977, Griffin, 1971 : Media and Thompson, 1974 : Russell, 1975, Howells and et al, Feil 1978: Burt, Martha R. 1980)을 검토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들의 강압 성행동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8) Gray, Michael D., Lesser, Diane., Rebach, Howard., Hook, Brenda., and Bound, Christin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A Local Perspective. Focus on Research Response to the Victimization of Women and Children", Journal of Center for Women Policy Studies, Vol.11, No5, 1988, pp.12-13.

연구 조사를 뒷받침한 여권론적 개념적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데이트 상황에서의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date rape propensity)을 조사하여 데이트 강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진단한다.

둘째, 남성의 여성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젊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요즘의 젊은 남성들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남성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남성성에 대한 태도, 공격적 성에 대한 오해(myth)정도와 데이트 강간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본다.

넷째,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문헌연구

### 1. 性역할 사회화(Sex-Role Socialization)

David와 Brannon은 성역할(sex-roles)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고 장려되고 또 그렇게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서로 다른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성(sex)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규정해 주는 사회 문화적 처방이다.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 교사, 주변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기타 각종 사회 매체로부터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행동, 관심, 특성 등을 배우게 된다.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각각 적절하다고 규정된 그러한 특성을<sup>10)</sup> 개발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사회가 처방한 성역할로부터 이탈하는 사

9) D. David & R. Brannon(Eds), The Forty-nine Percent Majority : The Male Sex Role, Addison-Wesley Publishing Co., Philadelphia, 1976, pp.1-45.

10) Crook, Linda Diane, op. cit., 1985, p20, citing Broverman, L.K., Vogel, S.R., Broverman, D.M., Clarkson, F.E., & Rosenkrantz, P.S., "sex 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8, No2, pp.59-78. Broverman과 그 일파는 남성과 여성의 대표적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사에 응답한 남성과 여성들이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아닌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남성의 특징: 감정을 감춤, 절대로 울지 않음, 경정을 잘 내림, 논리적임, 일(Business)에 능숙함.

람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부정적인 반응(reactions)을 경험하게 된다.<sup>11)</sup>

서구의 여권 운동의 여파에 힘입어 우리 나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양극화된 성역할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80년대부터 서서히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학자들은 경직된 성역할이 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제한시키고, 특히 여성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엔지니어링, 법학, 의학 등 전문 분야 뿐만 아니라 택시, 중장비 운전직, 경찰직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남성들도 메이컵전문가, 미용사, 디자이너 등 여성 분야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이 수용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다.

가정 내에서도 여성 전용이었던 가사, 육아에 이제 남성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융통성 있는 성역할이 결코 어색하지 않은 편리하고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남성의 섬세함이나 연약한 감정의 표현 등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수용되고 있다. "터프가이"(tough guy)가 더 이상 젊은 남자들의 모델이 아니다. 이러한 남성의 여성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특히 변화에 민감한 젊은 남자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지 점진해 보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전통적 남성역할의 주요 차원

David와 Brannon은<sup>12)</sup> 남성 역할에 관한 이론 연구에서 네 가지 기본 주제들(themes)을 중심으로 남성 역할을 기술해 주고 있다.

첫째 주제는 정서적 표현(emotional expressiveness)을 포함한 여성적이라는 모든 것으로부터 남성들은 강하게 회피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동기부터 남자 애는 여자애와는 다르

지도자로서의 행위, 경쟁적임, 강인함, 지배적임, 독립적임, 자심감(self-confidence), 공격성, 모험심. : 여성의 특징: 정서적임,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워함, 비논리적임, 가정 지향적임, 수동적임, 부드러움, 복종적임, 의존적임, 공격적인 것에 불편해 함.

11) Crook, Linda Diane, op.cit., 1985, p.18. In Pleck, J.H.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1.

12) David, D., & Brannon, op. cit., 1976, pp.1~45.

게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지는 그런 생각들에서 연유된다고 한다.<sup>13)</sup> 그래서 남성들은 특히 약해 보이는 행동과 같은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도록 사회화가 된다고 한다.<sup>14)</sup>

둘째 주제는 칭찬 받고 존경받기 위하여 능력(competence)을 갖고 성취(achievement)하려 하는 것이다. 강한 남자는 사회에서 부와 명예, 지위 등을 얻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주제는 남자는 강인함, 자신감(confidence)과 자기 신념(self-reliance)을 갖고 결단(determination)해 나가는 그런 의사소통 스타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인한 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자를 강하고, 자제심이 강하고, 독립적이도록 사회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주제는 남자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주저 없이 폭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주제를 기초로 하여 Robert Brannon은 남성성(masculinity)에 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sup>16)</sup>

### 3.성(Sexuality)에 대한 남성의 태도와 강압적인 성(Coersive Sexuality)

남성의 성에 관한 여러 이론가들의 생각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데 서로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첫째, O'neil은 남성들은 성행위(sex)를 "대상물적인(objective), 비인격적인(impersonal)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17)</sup> 성행위를 친밀한 의사소통으로 보는 측면이 아주 약하고, 신체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성적으로 흥분되면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적인 행위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둘째, Gross, Zilbergeld, Moreland 그리고 O'neil 등은 성행위(sex)를 "일종의 목

13) Crook, Linda Diane, op. cit., 1985, pp.23, In David D. & Brannon R., 1976.

14) Crook, Linda Diane, op. cit., 1988, pp.23-24.

15) Ibid.

16) Brannon, Robert & Juni, op. cit., 1984. "A Scale for Measuring Attitudes about Masculinity", Psychological Documents, Vol 14(Ms No. 2612), 1984, pp.1~12.

17) O'neil, J.M. "Male 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Psychologist, Vol. No.2, 1981, pp.61-81.

표를 달성하는 정복(a goal involving conquest)"의<sup>18)</sup>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성행위(sex)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남자가 획득해야 하는 (예컨대, 성적 파트너를 얻고, 오르가즘을 성취하는 것 등)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해된다.<sup>19)</sup> 성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은 잠재적 성적 파트너(sexual partner)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성적 파트너를 얻고 오르가즘을 체험하면서 성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적으로 정복하면서 남성들은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이다.<sup>20)</sup>

셋째, O'neil은 성행위에서는 남·여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남성의 지배(dominance), 통제(control), 그리고 세력(power)"이 필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21)</sup>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성적 상황에서 남성이 잘 알아서 성행위를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배운다고 한다.<sup>22)</sup> 남성들이 거친 폭력적인 연인을 여성들은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다.<sup>23)</sup>

넷째, Gross, Literwka, O'neil, 그리고 Gilbergeld 등은 성행위는 남성다움(manhood)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의 성행위는 남자에게 남성 정체감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행동이다.

남자다움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를 해내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또래집단(특히,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의 압력은 바로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검토해 본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성(sex)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성역할의 특성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을 정복감을 포함하는 비인격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과정

18) Ibid.,

19) Crook, Linda Diane, op. cit., p.39, citing Gross, A. E., "The Male Role and Heterosexu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4, No.1 pp.87-107. Zilbergeld, B. Male Sexuality : A Guide to Sexual Fulfilment, Little, Brown & Co. Boston, MA: Moreland, J., "Age and Change in the Adult Male Sex Role", Sex Roles, Vol. 6, No 6, pp.807-818.

20) Ibid.,

21) O'neil, op. cit., 1981.

22) Gross, op. cit., 1978 ; Zilbergeld, op. cit., 1978.

23) Zilbergeld, op. cit., 1978.

24) Gross, op. cit., 1978 ; O'neil, op.cit., 1981 ; Zilbergeld, op. cit., 1978 ; Literwka, The Socialized Penis. In J. Snodgrass(Eds), A Book of Readings for Men against Sexism, Time Chang Press, Albion, CA, pp. 16-35.



으로 보는 태도, 상호 만족을 위해서는 거친 공격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성이 남성의 복지와 남성다움을 입증하기 위한 기능으로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남성들은 성적 상황에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남성에게 기대되는 매우 바람직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소의 강압 또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해내는 것이 남자다운 처사라고 생각하게 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남성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비인격적, 대상적이며 목적 지향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여성비하적인 사고를 깊이 내포하고 있다. 성역할이 단순한 남여간의 서로 다른 차이의 문제가 아닌 남성은 다스리고 여성은 따르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의 원천임을 성적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칠고 공격적인 것이 남자답다는 잘못된 남성의 믿음이 성적 상황에서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여성의 의사를 잘못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 4. 데이트 강간에 관한 연구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트 강간(date rape)은 아는 사람에게 의한 강간을 뜻한다. 즉 데이트 강간은 지인강간(acquaintance rape)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뜻한다.<sup>25)</sup>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강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트 강간이란 남여가 서로 이성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성애적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남녀가 만나 함께 보내는 교제 활동 중에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력, 언어적 위협,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힘 등을 이용하여 남성이 상대 여성을 조정, 강제 또는 강압하여 성행위(sexual intercourse)를 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sup>26)</sup> 결과에서 데이트 상황에서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여성들도 어느 정도 데이트 상황에서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동에 대한 수용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남성들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그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트 상황에서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동이 바람직한 남성다움이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준다.

25) 한국 성폭력 상담소,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 1992, p.1-2.

26) 신성자, 데이트 강간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인문논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보고서 제5집, 1993, pp.157-176. 총323명 대학생(남자 144명, 여자 179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강간에 대한 남·여 인식의 차이를 비교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의 확장으로 남성들의 남성성(masculinity)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고, 27) 그러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 강압적인 성(sexuality)에 대한 오해와 강압적인 성행동 성향과의 관계를 보다 심도 깊게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9가지이다.

연구문제 1: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압적인 성행위(sexual intercourse)에 대해서 남자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자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데이트 강간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강압적인 성행위 시도시, 언어적 압력, 신체적 제재, 또는 폭력 위협 등의 수반 여부는 남자 대학생들의 강압적인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가?

연구문제 4: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을 특징 지우는 대표적인 여러 특성들(여성성 회피, 정서감축, 부양책임, 찬양과 존경, 강인함, 남성의 기계성, 폭력과 위협)이 남자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5: 남자 대학생들은 공격적 성에 대한 오해(myth)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6: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7: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8: 남성성을 특징 지우는 대표적인 여러 특성들 중에 어떤 특성들이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가?

연구문제 9: 공격성에 대한 오해와 데이트 강간 성향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은가?

---

27) Brannon, Robert. & Juri, Samuel, op. cit., 1984, p.79.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을 진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 성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에 대한 오해가 데이트 강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개념의 틀을 구성한 후 설문지(총 17페이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9개의 연구 질문들(research questions)의 답을 찾아보았다.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설정한 연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Pearson상관관계, T검증, one-way ANOVA, Stepwise Regression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들의 신뢰도(reliability)검증을 위해서 Cronbach  $\alpha$  계수 검증을 하였다.

## 3. 표본과 조사절차

본 조사 대상은 영남권 대도시(대구) 소재 A대학 상경 계열과 공학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학과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3명)이 전공 수업 시간에 방문하여 연구 취지와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주었다. 조사 대상자들을 각 학년별 전공과목 수강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전공과목 선정은 임의 추출 방법을 취하였다. 표본 선정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공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무작위 추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조사 방법의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약 60분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응답자들이 정직하게 응답을 돕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응답자들이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 장소에 둔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회수된 자료 297부 중 다소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시켜서 총 289명만 본 연구 조사를 위한 최종 관찰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약 3주일(1996.5.15~6.10)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4. 측정연구(Instrument)

9개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 조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자료분석시 주요 종속변수로 혹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주요 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성성(masculinity)에 대한 척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한 남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조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 측정 척도로 매우 훌륭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 Brannon Masculinity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sup>28)</sup> 총 1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Brannon의 남성성 측정 척도는 7개의 하부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sup>29)</sup>

〈표 2〉 남성성 척도 소개

남성성의 차원	하부 척도 내용	문항수	※본연구에서의 변수·척도명
I. 정서적 표현을 포함한 여성적인 것에서 회피차원	1. 여성성회피(Avoiding Femininity)	16	DS1
	2. 정서를 감춤(Concealing Emotion)	16	DS2
II. 찬양받고 존경받기 위한 능력감과 성취차원	3. 부양책임(Breadwinner)	15	DS3
	4. 찬양과 존경받음(Admired Respect)	16	DS4
III. 강인함, 자신감, 자기신념, 결정을 해 나가는 의사소통 스타일 개발 차원	5. 강인함(toughness)	16	DS5
	6. 남성의 기계성(Male Machine)	16	DS6
IV.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차원	7. 모험과 폭력(Adventure&Violence)	15	DS7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역할 차원	남성성(Masculinity):전체척도	110	D

이 척도는 test-retest에 의한 신뢰도(.92)와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검증에서 높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각 문항마다 응답자들은 Likert 방식에 따라 1점="전혀 그

28) 영어로 된 110개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후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번역사가 번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상호 검토한 후 내용을 함께 조정한 후에 사용하였다.

29) Brannon, Robert & Juri, Samuel, op. cit., 1984. 본문 II3 참조.

렇지 않다”부터 7점=“아주 그렇다”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4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작을수록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약하고 점수가 클수록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강하다고 해석한다. Brannon의 남성성 측정 척도의 하부 척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본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남성성 측정 척도(D) 및 7개 하부 척도(DS1~7)를 Cronbach  $\alpha$ 계수값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상당히 높은 내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30)</sup>

### 2)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척도(Sexual Aggressiveness Mythology Scale)

이 척도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척도(F)이다.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응답자들이 Likert 방식에 따라 1점 = “아주 동의하지 않는 편”에서부터 5점 = “아주 동의하는 편”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되었다.

14개 문항 내용은 Crook<sup>31)</sup>가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를 측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요 신념(성행위는 정복을 포함한다; 성행위(sex)에서는 남성의 지배와 통제가 요청된다; 성행위는 남성성의 증명이다; 남성의 성(sexuality)은 생리적으로 결정된다)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14개 문항 중 6개 문항은 남성들의 성적 공격성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기대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된 내용이다.(예; “여자는 성교시 남성이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기를 기대한다”) 나머지 8개 문항은 성(sexuality)에 관한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생각과 관련된 내용이다.(예,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자보다 강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28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4개 문항 내용들 간의 내적 관계성을 조사해 본 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값이 .75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스러운 내적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척도는 자료 분석에서 주요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사용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 3) 강간 성향 측정 척도(Rape Propensity Scale)

데이트 상황에서의 강간 성향 측정하기 위한 척도(TABC)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언어

30) 본문II문헌 연구, 2. 전통적 남성 역할 차원 참조.

31)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값 : D(.95), DS1(.78), DS2(.77), DS3(.73), DS4(.88), DS5(.86), DS6(.87), DS7(.75)

적 압력, 신체적 제재, 폭력 위협 등을 행사하는 각기 다른 세 가지 3유형의 데이트 강간 상황을 묘사한 세 가지 비네트(vignette)를 완성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가상적인 데이트 강간 상황을 묘사한 세 가지 비네트를 읽고 난 후에 각 비네트 내용에 대해 묻는 7개 동일한 문항에 각각 세벌씩 대답하도록 하였다. 데이트 강간 상황을 묘사한 각 비네트는 약 500자 내외로 기술되었다.

응답자는 각 문항마다 Likert방식에 의해 1점 = "아주 그렇지 않는 편"부터 5점 = "아주 그런 편"까지 점수를 매겨 응답자들이 3가지 유형의 데이트 강간에 대해서 가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토대로 강간 성향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의미로 데이트 강간 성향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강간 성향(TABC)값이 척도(TABC)의 총값(105점)의 60%이상(84점)일 경우는 "양성 집단(H)"으로, 척도값이 척도의 총값의 40% 미만(42점미만)인 경우는 "음성 집단(L)", 그리고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척도값이 총값의 40% 이상~60%미만 범위(21점~84점)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성 집단(M)"으로 분류하였다. 본 척도에서 소개된 세 가지 유형의 데이트 강간 상황 내용과 7개의 문항 내용은 모두 Crook가 소개한 내용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sup>32)</sup>

본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척도 문항에 대한 내적 관계성을 조사해 본 결과 만족스러운 내적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sup>33)</sup>〈표3〉

〈표 3〉 강간 성향 측정하는 척도

전체강간성향척도	(TABC)	유형 I 척도	(A)	유형 II 척도	(B)	유형 III 척도	(C)
척도값 가능 점수	21-105점	7-35점		7-35점		7-35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	TABC (.87)	A(.67)		B(.78)		C(.82)	

32) Crook Linda Diane, op. cit., 1985. p.81-83.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트 강간성향을 묘사한 3가지 비네트의 내용은 Zellman, G. L., Goodchilds, J. D., Johnson, P. B., & Giarrusso, R이 미국 심리학회회의에서 1981년 (Aug.)에 제출하였던 지인간에 일어나는 비동의적 성행동에 강간규정에 대한 연구에서 소개되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7개의 문항은 응답자 자신이 보고하는 강간가능성을 묻는 문항 1개, 강간을 묘사한 비네트를 읽고 성적으로 흥분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 1개, 그리고 강간오해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표4〉 참조

33) Crook Linda Diane, op. cit., 1985. p.78-81.

7개 문항 내용	변수명	유형 I	변수명	유형 II	변수명	유형 III	변수명
1. 여성책임정도	ABC1		A1		B1		C1
2. 여성의 내숭정도	ABC2	언어적압력	A2	신체적제재	B2	폭력협박	C2
3. 자기보고식 강간성향	ABC3	(verbal	A3	(physical	B3	(threat of	C3
4. 여성이 피할 수 있음	ABC4	pressure)	A4	restraint)	B4	violence)	C4
5. 강간이라고 정의	ABC5	이 가해진	A5	가 가해진	B5	이 행해지는	C5
6. 여성도 즐겼음	ABC6	강간성향)	A6	강간상황	B6	강간상황	C6
7. 성적으로 흥분됨	ABC7		A7		B7		C7

#### IV. 결과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배경

조사 대상자(287명)는 모두 대학 재학 중인 미혼 남성이다. 나이의 분포 범위는 19세에서 26세까지이며 평균 연령은 22.7세이다. 대다수의 응답자(89.3%)는 데이트 경험이 있으며 평균 약 3명(2.8) 가까운 데이트 상대와 데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252명)중에 약 20%(50명)는 상대 여성이 원치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 접촉 행위(예, 키스, 포옹, 패팅, 성교 등)를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데이트 상황에서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동이 실제로 상당히 일어난다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응답자의 약 10%만이 혼전 성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대부분(90%)은 혼전 성행위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깊은 애정과 책임감 없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약 26%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 대학생들이 성에 대한 태도가 꽤 진보적이고 이성과의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에 적극적임을 짐작케 한다. 응답자의 대다수(99.3%)가 이성 교제로 인한 성문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여 남자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해 준다.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8.2%)가 남성으로 태어난 사실에 만족하고 있어<sup>34)</sup>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신의 성에 대해 훨씬 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잘 대비된다.<sup>35)</sup> 이는 남성

34) 신성자, op. cit., 1993, p.168.

35) 전체 상황에서의 강간 성향 척도(TABC)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 ; 언어적 압력이 가해진 상황에서의 강간 성향 척도, 유형 I, (A)는 .67 ; 신체적 제재가 가해진 상황에서의 강간 성향 유형 II,

지배적인 사회의 일면을 잘 반영해 드러내 주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

데이트 강간 성향(date propens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척도(TABC)의 평균값(57.3점)과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데이트 강간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응답자들 중에 데이트 강간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집단은 제외시키고 태도가 분명한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데이트 강간 성향을 살펴보았다. 응답자들 중에서 약 9.4%(27명)만이 데이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위(강간)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이보다 약 3배나 많은 응답자들(28.3%)이 그러한 강압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여 주어 대조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 중 약 28%이상이 데이트 강간 양성 집단으로 파악되어 남자 대학생들을 데이트 강간 위험수위군(risk group)으로 주목해야 할 근거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연구문제: 1><sup>36)</sup>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 여성의 분명한 반대 의사 표명 또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할 때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남성이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연구가설: 2> 37)

강압적인 방법이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성격을 지닐수록 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데이트 강간이 훨씬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연구문제 :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적 압력”을 가한 강압적인 성행위(유형 I)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극소수(3.8%)만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고 응답자중 약 56.3%(161명)가 오히려 그러한 데이트 강간 행위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 10명 중 약 6명 가까이가 데이트 상황에서 언어적 압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데이트 강간을 행한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체적 제재”를 가한 데이트 강간(유형 II)성향을 나타낸 응답자들도 약 26.2%나 되었으며 “폭력 위협”을 행사하는 데이트 강간(유형 III)성향을 보인 응답자들도 22.6%에 이르렀다.<표4>

(B)는 .78 : 폭력 위협이 가해진 상황에서의 강간 성향 유형 III, (C)는 .82.

36) III, 4, 3) 데이트 강간 척도 참조

37) <표 4> 세 하부 척도들의 (A,B,C)의 평균값 및 분포 참조.



〈표4〉 데이트 강간 성향

척도 내용	척도이름	강간성향을 보이지 않는 집단	불확실한 집단	강간성향이 있는 집단	표본 수	척도 평균값	표준 오차 (SD)
전체데이트 강간성향	TABC (105점만점)	9.44% (27)	61.8 (177)	28.32 (81)	285	57.29	11.08
유형 I의 강간성향	A (35점만점)	3.8 (11)	39.9 (114)	56.3 (161)	286	22.23	4.27
유형 II의 강간성향	B (35점만점)	19.6 (56)	54.2 (155)	26.2 (75)	286	18.68	4.69
유형 III의 강간성향	C (35점만점)	35.7 (102)	50.7 (145)	13.6 (41)	286	57.29	4.83

본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대학생들의 높은 데이트 강간성향은 대학에서 먼저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예방과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 3. 남성성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의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D)점수의 평균값은 척도 값의 총점(770점)의 중간값(385점)보다 훨씬 높은 438.4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남자 대학생들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문제: 3〉

척도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응답자들 중에 극소수인 약 4.9%(14명)만이 남성성에 대해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많은 응답자들(53.3%, 44명)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 중 남성성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는 극히 적었다. 상당수의 응답자(42.7%)들은 어느 쪽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표 5〉 남성성에 대한 태도

척도명	각 척도 내용	각 척도 평균값 (Mean)	표준 오차 (SD)	실제 최소값 (Min)	실제 최대값 (Max)	각 척도별 가능 점수범위	각 척도 구성 문항수
D	전체남성성 (Masculinity)	438.38	64.0	209	614	110~770	110

척도명	각 척도 내용	각 척도 평균값 (Mean)	표준 오차 (SD)	실제 최소값 (Min)	실제 최대값 (Max)	각 척도별 가능 점수범위	각 척도 구 성 문항수
DS1	여성성회피 (AvoidingFemininity)	51.86	12.6	20	84	16~112	16
DS2	정서감춤 (Concealing Emotion)	62.01	12.6	19	90	16~112	16
DS3	부양책임 (Breadwinner)	51.49	9.7	20	71	*15~103	(15)
DS4	찬양과 존경받음 (Admired Respect)	72.91	14.1	22	106	16~112	16
DS5	강인함(Toughness)	76.12	14.3	32	107	16~112	16
DS6	남성의 기계성 (Male Machine)	53.45	14.3	24	106	16~112	16
DS7	모험과 폭력 (Adventure & Violence)	53.32	10.1	22	77	*15~103	(15)

\* 전체 남성성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 (D)값은 7개 하위 척도(DS1~7) 값의 합임

남성성 측정을 위한 일곱 개의 남성성의 각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척도들값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의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강인해야 함(DS5)”과 “찬양과 존경을 받아야 함(DS4)”을 매우 중요한 남성성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서를 감추는 것(DS2)”과 “모험과 폭력(DS7)”도 비교적 중요한 남성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 “남성의 기계성”, “여성성회피”, 그리고 “부양책임” 등의 남성적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전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5> 이러한 사실은 사회 역할에서의 남.여 구분에 있어서는 다소 융통성 있게 남성들이 변화한 반면, 전통적 남성의 기질은 젊은 남자 대학생들에게 아직도 남성성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연구문제: 4>

#### 4.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응답자들이 성적 공격성(sexual aggressiveness)에 대한 그릇된 믿음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F) 값의 평균값(41.4점)이 척도의 총 점수(70점)의 중간값(35점)을 훨씬 넘었다. 이

것은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성적 공격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응답자들 중에 약 40.4%(144명)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성의 공격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응답자들은 소수(3.8%)였다. <연구 문제: 5>

반면, 60%에 가까운 응답자들(131명)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옳다고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들이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지에서 보여 주었던 경향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남성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성적 공격성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갖게 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특성을 남성성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성적 공격성(sexual aggressiveness)에 대한 태도에서 한층 더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남·여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성(sexuality)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성적인 상황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훨씬 더 뚜렷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 5.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

응답자들이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성적 공격성에 대해 가지는 오해의 정도는 높은 상관성(Pearson 상관계수  $r=.410$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OVA 검증에서도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H)과 낮은 집단(L)간에 성적 공격성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정도(F)가 매우 차이가 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성의 공격성에 대해 잘못된 통념 수용도가 높았다. <연구문제: 6> 남성성 특성을 이루는 7개의 하부 특성들 모두(DS1~7) 공격적인 성에 대한 오해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

<표6>남성성에 대한 태도별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남성성에 대한 태도	남성성 특성별 집단구분(L,H) (관찰수)	평균값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 F)	T. 20 (P.)
남성성(D)	L(143)	38.99	-35.36 (.0001)
	H(144)	43.70	

여성성 회피(DS1)	L(141)	39.40	-4.28
	H(146)	43.24	(.0001)
정서감춤(DS2)	L(54)	37.74	-3.17
	H(233)	42.19	(.0023)
부양책임(DS3)	L(134)	39.55	-3.72
	H(153)	42.93	(.0002)
찬양과 존경받음(DS4)	L(142)	39.37	-4.38
	H(143)	43.30	(.0001)
강인함(DS5)	L(143)	39.45	-4.22
	H(144)	43.24	(.0001)
남성의 기계성(DS6)	L(140)	39.29	-4.50
	H(147)	43.32	(.0001)
모험과 폭력(DS7)	L(132)	39.34	-4.14
	H(133)	43.07	(.0001)

L, H집단은 각 척도(D,DS1~7)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중앙값 미만(L)과 이상(H)으로 나누어 졌음. 각 척도의 중앙값 : D(433점), DS1(52점), DS2(52점), DS3(52점), DS4(74점), DS5(77점), DS6(72점), DS7(54점)

### 6.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데이트 강간 성향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데이트 강간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Pearson단순 상관 검증<sup>38)</sup> 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강할 수록 데이트 강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문제: 7>

38) 남성성에 대한 태도(D,DS1~DS7)와 데이트강간성향(TABC,A,B,C)의 Pearson상관계수( $r$  값)

남성성 강간성향	D(전체)	DS1	DS1	DS1	DS1	DS1	DS1	DS1
TABC(전체)	.277	.230	.162	.166	.182	.193	.193	.287
A(유형 I)	.245	.150	.197	.79	.109	.187	.178	.302
B(유형 II)	.229	.171	.118	.208	.150	.165	.165	.238
C(유형 III)	.196	.228	.083	.210	.138	.092	.126	.160

〈표7〉 남성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간 성향

종속변수	남성성에 대한 집단 (관찰수)		평균값 (강간 성향)	T. (P.)
강간 성향 (TABC)	L	(143명)	54.47	-4.32 (.0001)
	H	(144명)	59.97	
유형1 (A)	L	(142명)	21.39	-3.36 (.0009)
	H	(144명)	23.06	
유형2 (B)	L	(142명)	17.60	-3.9311 (.0001)
	H	(144명)	19.74	
유형3 (C)	L	(142명)	15.56	-2.851 (.0047)
	H	(144명)	17.17	
L집단 :	남성성에 대한 측정 척도(D)점수의 중앙값(433점)미만인 집단(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H집단 :	남성에 대한 측정척도(D) 점수가 중앙값(433점)이상인 집단(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둘째, 이러한 성향은 여러 형태의 강압적 방법(예컨대 언어적 폭력, 신체적 제재 폭력위협)을 사용한 다양한 데이트 강간 상황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강압적인 방법이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언어적 압력을 가한 데이트 강간(유형 I) 상황에서는 더욱 더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폭력위협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협감을 많이 주는 데이트 강간(유형 III)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다소 약화되었다.〈표7〉

〈표8〉 남성성 특성별로 본 강간성향

남성성의 특성들 (DS1~DS7)	남성성 특성별 집단(L.H) (관찰수)		평균값 (강간성 성향: TABC)	T. (P.)
여성성회피 : DS1 (Avoiding Feminity)	L	(141)	54.97	-3.440 *(.0007)
	H	(146)	59.41	
정서감춤 : DS2 (Concealing Emotion)	L	(54)	54.06	-2.171 (.0332)
	H	(233)	57.97	
부양책임 : DS3 (Breadwinner)	L	(134)	55.13	-3.008 (.0029)
	H	(154)	59.06	
찬양과 존경받음 : DS4 (Admireed respect)	L	(142)	55.8	-2.114 (.0354)
	H	(145)	58.6	

강인함 : DS5 (Toughness)	L H	(143) (144)	55.58 58.87	-2.530 (.0120)
남성의 기계성 : DS6 (Male Machine)	L H	(140) (147)	55.74 58.65	-2.241 (.0258)
모험과 폭력 : DS7 Adventure & Violence	L H	(132) (155)	54.62 59.50	-3.739 *(.0002)

L, H집단은 남성성에 대한 태도 측정척도(D)의 7개의 하위척도 (DS1-7)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중앙값 미만(L집단)과 이상(H집단)으로 나누어졌음. 각 하위척도의 중앙값은 다음과 같다: DS1(52점), DS2(52점), DS3(52점), DS4(74점), DS5(77점), DS6(72점), DS7(54점).

셋째, 특히 남성성 특성 중 "모험과 폭력성(DS7)"과 "여성성회피성(DS1)"이 다른 특성들보다 데이트 강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냈다. <연구문제: 8> 즉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보고 몸으로 싸우는 폭력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남자와 여자는 집안에서나 밖에서 일, 취미, 외양 등에서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은 데이트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성 특성들 중에 서로 특히 "모험과 폭력성", 그 다음으로 "여성성회피성"의 개선에 더욱 더 주력해야 함을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다. <표 8>

<표9>강간 성향으로 본 남성성에 대한 태도(D) : ANOVA

강압적인 성행동성향별 집단(관찰수)	종속변수	평균값 (D, DS 1~7)	Duncan-te st	F. (P.)
L(27) M(175) H(84)	(D) 남성성태도 (Masculinity)	380.7 437.1 459.7	B A A	17.47 (.0001)
L M H	(DS1) 여성성회피 Avoiding Fimininity)	39.7 52.5 54.4	B A A	15.96 (.0001)
L M H	(DS2) 정서감 (Concealing Emotion)	54.1 62.0 64.5	B A A	7.16 (.0009)
L M H	(DS3) 부양책임 (Breadwinner)	45.2 51.0 54.4	B A A	10.24 (.0001)

L	(DS4)	68.7	B	4.22 (.0157)
M	찬양과 존경받음	71.9	AB	
H	(Admired Respect)	78.3	A	
L	(DS5)	67.4	B	8.75 (.0002)
M	강인함	76	A	
H	(Toughness)	79.0	A	
L	(DS6)	62.3	B	7.47 (.0007)
M	남성의 기계성	70.0	A	
H	(Male Machine)	74.1	A	
L	(DS7)	43.3	B	21.50 (.0001)
M	폭력과 모험	53.5	A	
H	(Violence Adventure)	56.9	A	

L(27명) : TABC척도값이 63점 미만(강간 양성집단)  
 M(175명) : TABC척도값이 63점 이상 84점 미만(강간 중성집단)  
 H(84명) : TABC척도값이 84점 이상~105미만(강간 양성집단)

넷째, 반대로 강간성향 정도에 따른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강간 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 또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데이트 강간 성향 정도에 따라서 남성성 특성 중에 특히 "모험과 폭력성"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회피성"에서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9>

<표10> 남성성 특성별로 본 유형별 강간성향

		유형 I (A)			유형 II (B)			유형 III (C)		
강간성향별 집단 구분	종속변수	평균값 (D, DS 1-7)	Dun -Can	F. (P.)	평균값 (D, DS 1-7)	Dun -Can	F. (P.)	평균값 (D, DS 1-7)	Dun -Can	F. (P.)
L	(D) 남성성 태도 (Masculinity)	367.1	B	10.12 (.0001)	408.1	B	9.16 (.0001)	423.2	B	4.95 (.0077)
M		431.2	A		441.9	A		444.7	A	
H		448.4	A		453.7	A		454.5	A	
L	(DS1) 여성성 회피 Avoiding Fiminity)	39.9	B	6.52 (.0017)	47.4	B	4.72 (.0096)	48.5	B	6.73 (.0014)
M		51.0	A		52.5	A		53.1	A	
H		53.3	A		53.9	A		55.0	A	

L M H	(DS2) 정서감춤 (Concealing Emotion)	54.6 60.6 63.5	B A A	3.73 (.0251)	59.1 62.5 63.2	B BA A	1.99 (0.139)	60.8 62.7 62.7	A A A	0.72 (.4853)
L M H	(DS3) 부양책임 (Breadwinner )	42.9 50.1 52.5	B A A	5.40 (.0050)	48.0 51.5 54.1	B A A	6.33 (.0021)	49.0 52.0 54.9	A AB B	4.97 (.0075)
L M H	(DS4) 찬양과 존경받음 (Admired Respect)	63.00 72.25 74.06	B A A	3.43 (.0338)	69.0 72.7 76.2	B BA A	4.21 (.0159)	70.8 73.7 75.6	A A A	2.09 (.1255)
L M H	(DS5) 강인함 (Toughness)	67.3 74.7 77.8	B A A	4.77 (.0092)	71.3 76.8 78.3	B A A	5.40 (.0050)	74.9 76.7 77.3	A A A	0.78 (.4586)
L M H	(DS6) 남성의 기계성 (Male Machine)	58.9 69.74 71.75	B A A	4.50 (.0119)	65.2 71.3 72.7	B A A	5.08 (.0068)	67.8 71.6 73.0	A AB B	2.89 (.058)
20 L M H	(DS7) 폭력과 모험 (Violence & Adventure)	40.5 52.0 55.5	B A A	15.10 (.0001)	48.0 54.6 55.4	B A A	11.38 (.0001)	51.0 54.9 55.1	B A A	5.0 (.0074)
		L집단 M집단 H집단 (11명)(114명)(161명)			L집단 M집단 H집단 (56명)(155명)(75명)			L집단 M집단 H집단 (102명)(145명)(39명)		

※L, M, H 세 집단 구분은 <표9>에서와 동일함.

언어적 압력(유형 I) 또는 신체적 제재(유형 II)를 가하는 데이트 강간성향이 높을수록 남성성 특성 중에 특히 모험과 폭력성이 높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편 폭력 위협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협성이 심각한 데이트 강간 성향은 모험과 폭력성 보다 여성성회피성에서 다소 더 차이를 보였다. <표10>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자 대학생들은 극단적으로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한 데이트 강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지만 웬만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는 평소 전통적 남성성을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7.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와 강간성향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myth)정도와 데이트 강간 성향은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9) 성적 공격성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데이트 강간 성향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9>

<표11>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정도별 강간 성향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F) 정도별 집단 (관찰수)			강간성향의 평균값(TABC)	T. (P.)
F	L	(132)	53.59	-5.345 (.0001)
	H	(155)	60.33	

L, H 집단은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를 측정하는 F척도의 중앙값(42점)을 중심으로 중앙값 미만(L)과 이상(H)으로 나누어 졌음.

이러한 경향은 강압적 방법이 다소 다른 세유형의 데이트 강간 성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데이트 강간 성향과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와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방법을 반대로 적용해 보았다. 응답자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 정도에 따라 응답자들이 가지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정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역시 강간 성향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와 데이트 강간과의 높은 상관성을 지지해 주었다. <표1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해 준다.

### 8.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 변수

지금까지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주로 단순 상관관계, T검증 ANOVA검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진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서로 비교하며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주요 예측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39)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F)와 데이트 강간성향의 Pearson 상관계수( $\gamma$ , 값): TABC(전체), .372; A(유형 I), .341; B(유형 II), .312; C(유형 III), .247

〈표12〉 데이트 강간 성향 파악을 위한 주요 예측 변수

변 수	R <sup>2</sup> 회귀계수	R <sup>2</sup> 증가	Beta값	P> T
F(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	.1380	.1380	.29	.0001
DS7(모험과 폭력성)	.1713	.0388	.17	.0517
DS1(여성성회피성)	.1824	.0111	.11	.0031

※PIN 15, POUT.15(default)

Stepwise Regression 분석 결과, 데이트 강간 성향을 예측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이다. 그 다음으로 남성성을 특징짓는 일곱 개의 하부 특성들 중에 "모험과 폭력성"이 데이트 강간 성향을 예측하는데 특히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모험과 폭력성"에 이어 "여성성 회피성"도 데이트 강간 성향 파악에 주요 예측 변수로 포함되었다.

즉, 남자 대학생들이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가 많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중 특히 "모험과 폭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강간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앞서 밝혀진 사실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 〈표13〉

실제로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남성성에 대한 태도도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H)과 그렇지 않은 집단(L)간에 데이트 강간 성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별 또는 남성성에 대한 태도별로 본 데이트 강간성향에서 나타났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표13〉

〈표13〉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와 남성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데이트 강간 성향

F&D특성		강간성향		관찰수 (명)	데이트강간성향 (평균값)	T. (P.)
		L	H			
F(성적공격성 오해)	D(남성성)	L		100	63.32	5.77 (.0001)
		H		87	53.21	
F	DS1(여성성회피)	L		95	61.77	5.52 (.0001)
		H		80	52.84	
F	DS2(정서감춤)	L		138	60.66	3.66 (.0006)
		H		37	52.40	

F	DS3(부양책임)	L H	95 75	17.38 15.09	3.06 (.0006)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집단(F척도 값 중앙값이상 응답자들) 남성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D척도값, DS1 ~ DS7 하부척도값 중앙값이상인 응답자들)에 속하면 "H" 집단으로 구분하고, F척도값과 D척도값(DS1 ~ DS7포함)이 중앙값 미만인 경우는 "L"집단으로 구분하였음.
F	DS4(찬양과 존경)	L H	94 80	61.11 53.51	4.51 (.0001)	
F	DS5(강인함)	L H	94 81	61.41 53.44	4.64 (.0001)	
F	DS6(남성의기계성)	L H	97 82	61.09 53.39	4.403 (.0001)	
F	DS7(모험과 폭력)	L H	101 76	62.16 53.20	5.17 (.0001)	

##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데이트 강간의 발생율이 높고 그로 인해 겪는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데이트 강간을 심각한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 데이트 강간 발생을 용이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데이트 상황에서 남성들의 강압적 행동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서구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연구를 통해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의 성향(date rape propensity)을 성역할 사회화의 개념적 틀 안에서 규명해 보았다.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소개하고 밝혀진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응답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masculinity)의 특성들("여성성회피성", "정서를 감춤", "부양 책임감", "찬양과 존경받음", "강인함", "남성의 기계성", "모험과 폭력")을 대체로 수용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그 수용 정도는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본 조사 응답자들에게서 남성성 특성들 중에 "여성성회피", "남성의 기계성", 그리고 "부양책임" 등의 남성성의 특성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물학적인 정보보다는 개인의 개성, 능력에 따라 일과 생활을 선택하려는 보다 융통성 있는 기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최근 젊은이들의 성향과도 일치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남성성의 다른 주요한 기질적 특성들인 "강인함", "모험과 폭력", "정서 숨김" 등은 여전히 남성의 중요한 특성으로 응답자들이 받아들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러나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내면화 되어 있는 오늘의 젊은 남자 대학생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생활 상황에서 보다 성적 상황(sexual situation)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더욱 더 뚜렷이 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성적 공격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수용 정도가 꽤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남성들의 여성 분야 직업 진출, 남성들의 외양의 여성화, 가사·육아활동에의 남성들의 참여 등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아직도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적어도 성역할(sex roles)관점에서 볼 때 성(sexuality)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주 변화가 더딘 영역임을 확인케 해 준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가정에서 역할 구분이 다소 융통성 있게 점차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회의 노력이 없이는 남성들의 강압적인, 공격적인 성행동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추측된다.

세째, 자료 분석 결과 응답자들(남자 대학생들)에게서 상당히 높은 데이트 강간 성향을 발견하였다.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자들(9.4%)은 아주 적었으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28.3%)은 그러한 강압적인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성향을 보였다. 강압적인 방법의 성격에 따라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데이트 강간(예컨대, 언어적 압력을 가한 강간)일수록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약60%)을 훨씬 많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트 상황에서 위협성이 다소 덜 심각한 유형의 데이트 강간은 빈번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주목하게 한다.

데이트는 남·여가 서로 이성으로서 관심을 갖거나 이성애적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남·여가 만나는 교제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여성은 데이트 상대 남성에게 정서적으로 적지 않게 연결(involved)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협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형태의 남성의 강압적인 성적 행동에 즉시 강도 높게 저항을 하며 대응하는 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 쉽다.

타인을 정서적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여성의 높은 덕목(virtue)이라고 여성들은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타인을 돌보는 역할에 익숙한 많은 여성들은 특히 강압성이 상

대적으로 덜 심각한 형태의 데이트 강간 상황에서 남성에게 성적으로 희생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데이트 강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은 오히려 이러한 위협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형태의 데이트 강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째, 성적 공격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태도 변수라는 서구의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본 조사에서 발견하였다. 성적 공격성(sexual aggressiveness)에 대한 오해(myth)정도는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는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 시켜 준다.

다섯째, 물론 남성성 특성을 설명해 주는 일곱 가지 주요 특성들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데이트 강간 성향 예측에 고려해야 할 변수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모험과 폭력성”이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특성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여성성 회피성”이 데이트 강간 성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여성성 회피성”이 다른 남성성의 특성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데이트 강간 성향의 감소 기대에 다소 긍정적 의미를 던져 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답자들이 남성성 특성들 중에 “모험과 폭력성”은 아직도 중요한 남성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모험과 폭력성”이 남성성 특성들 중에 데이트 강간 성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특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성들의 “모험과 폭력성”이 감소되지 않는 한 남성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성적 상황에서 남성의 지배(dominance), 통제(control), 그리고 힘(power)이<sup>40)</sup> 행사되어야 만족스러운 성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남성의 성적 공격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바로 남성의 주요 특성인 “모험과 폭력성”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제로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트 강간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성의 “모험과 폭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데이트 강간의 발생의 주원인은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수용 또는 부추기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 크게 기인한다는 사실에 모아진다. 성역할

40) Oneil, op. cit, 1981.

고정관념은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지지 혹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본 조사에서 뚜렷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데이트 강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전통적인 남성성 (특히, "모험과 폭력성", "여성성 회피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토대로 한 성적 공격성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반듯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 VI. 제 언

남·여의 데이트 상황에서 성(sex)이 강제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남자 대학생들이 데이트 강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다.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비인격적인 강제된 성행위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데 이제 대학이 앞장설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학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양심을 자극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sup>41)</sup>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발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데 대학은 매우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데이트 강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남·여 성역할의 전전한 재정립, 데이트 강간의 실태를 알리는 일 등은 교육을 통해 그 효과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관련 교양 강좌(예컨대, 여성학, 여성과 사회등) 내용을 확충하거나 강화하는 방법 또는 "데이트와 성"과 같은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전술하였듯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성성 특성 중에 "모험과 폭력성"이 남성들의 데이트 강간 성향과 특히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모험과 폭력성"을 남성들은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남성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데이트 강간 예방과 대처를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남성들의 "모험과 폭력성"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재사회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폭력 서비스는 문제 발생 후 상담 및 치료 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나,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문제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가해자 그리고 잠정적 가해자(potential offender)가 될 수 있는 남자 대학생들을 포함시

41) Gray, Michael D. et al., op. cit., 1988. pp.12-13.

키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데이트 강간 대처 방안 모색은 강압적인 성적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대처 방법보다는 어떻게 남성들의 강압적인 성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먼저 사회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간의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9.3%)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많은 응답자들이 높은 데이트 강간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점을 상기할 때 젊은 남자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전문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성교육과 상담을 위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높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집단 단위의 계몽 교육, 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자 대학생들은 데이트와 성에 모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학생이라는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행동에 또래집단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집단의 정보 전달 성과 보편성(universality)을 통한 집단 속에서의 높은 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한 데이트 활동을 위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기술 훈련, 방어와 혼돈감을 줄일 수 있는 의사소통훈련이 병행될 때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문제는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들을 대학과 지역사회 자원인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가 구축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희생(victimization)시키는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위해 대학은 지속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며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